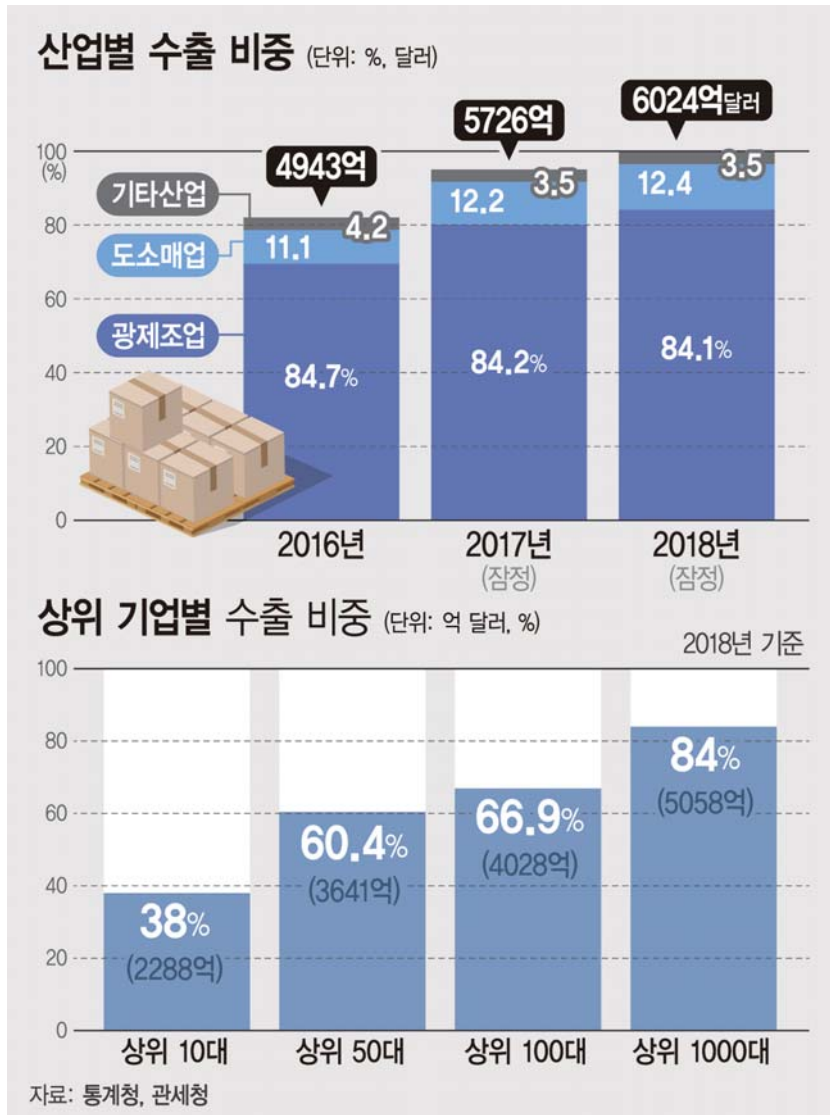


수출 '대기업 쏠림' 2년째 심화

통계청·관세청 공동, 2018년 기준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1% 대기업 전체 수출액 67% 차지...무역집중도 2년째 ↑
광제조업 쏠림도 여전...상위10대기업 수출액 95% 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넘어섰던 지난해에도 주력 산업 및 대기업 중심의 무역액 쏠림 현상은 지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 반도체 슈퍼호황 등으로 수출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던 터라 기저효과가 발생하면

서 쏠림의 속도는 다소 누그러졌다. 8일 통계청과 관세청이 공동 작성·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속보)'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수출액은 60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5.2% 늘었다. 산업 전반에서 호조를 보이면

서 수출 규모는 지난해 처음 6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대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 9만4000개 중 1%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 99% 중 97%가 중소기업이고 2%가량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지난해 대기업 수출액은 4038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67.0%를 차지했다. 구성비는 2016년(64.2%), 2017년(66.4%)보다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8.6%에서 17.7%, 16.9%로 매년 낮아졌다. 중견기업 비중은 17.2%에서 15.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16.1%로 소폭 올랐다.

상위 n개 기업이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무역집중도는 더욱 커졌다.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288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38.0%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16년(33.9%), 2017년(36.2%)에 이어 2년 연속 높고 있다. 상위 20대 기업으로 넓혀 보면 무역집중도는 48.5%로 높아진다. 이 역시 2년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50대, 100대, 500대, 1000대 기업으로의 무역 집중도는 지난해 각각 60.4%, 66.9%, 79.1%, 84.0%였다. 모두 2016년부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세계 교역량이 주춤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수출 실적이 부진했었다. 대기업 수출액이 8% 가까이 감소하고 무역 집중도 역시 완화됐었다.

심상욱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지난해 반도체와 석유 정제 및 화

학 업종이 주로 호황을 보였는데, 이 업종들이 대기업의 비중이 높다"며 "다만 2017년 수출 상황이 워낙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쏠림의)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무역액 증감률은 2017년(15.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상위 기업만 놓고 봐도 10대 기업은 23.7%에서 10.4%로, 50대 기업은 19.9%에서 5.5%로, 100대 기업은 19.0%에서 5.7%로, 1000대 기업은 17.6%에서 5.1%로 주저앉았다.

대기업 수출액의 1년 전 대비 증감률은 6.2%로 중견기업(6.8%)보다 뒤처졌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액의 증감률(0.2%)과 비교하면 60배나 높았다.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부진했던 탓이었던 것으로 통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재 수출액은 전년보다 2.2% 감소한 682억달러로 수입액(720억달러)보다 처음으로 낮았다. 반면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액은 모두 전년 대비 14.8%, 2.1% 증가했다.

수출 실적은 여전히 주력 산업 위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광제조업 수출액은 5068억달러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다만 이 비중은 1년 전(84.2%)에 비해 낮아졌다. 도소매업 수출액(744억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그쳤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중에서도 광제조업이 95.0%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00대 기업 중에서는 89.8%가 광제조업이었다. 500대 기업, 1000대 기업의 수출액 중에서도 광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9.1%, 88.5%로 대부분이었다.

한편 지난해 수입액은 5279억달러로 1년 전보다 11.6% 증가했다. 대기업 수입액이 3284억달러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다. 수입 역시 광제조업이 3445억달러로 비중(65.2%)이 가장 컸다. 심 과장은 "석유 정제 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원유나 가스 등 기초 원료의 수입이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주세개편, 최대한 빨리 늦으면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세 개편안 확정과 관련, "혹시 늦어진다면 (내년) 세제 개편안을 낼 때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종가세(출고가 기준 과세)에서 종량세(용량·일요일 농도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주세 개편안이 업계 반발에 막혀 빨라도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7~8월까지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결 제 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을 최대한

작은 결과"라며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별한 움직임에 의한 쏠림현상이 있다면 늘 대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율변동성 확대와 관련한 자본 유출 입력에 대해선 "외국인 채권부자가 지난주 1조원 순유입됐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 중 중장기 채권 부자가 4분의3 정도인데 이 같은 구조로 볼 때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간 무역분쟁에 대해선 "제가 알기론 상당부분 협의가 잘 진전돼 막바지에 와있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주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

"환율변동성으로 급격한 외국인 자본유출 없을 것"

빨리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세 개편이 미뤄진 데 대해 "생각보다 주중간, 업계간 이해관계 (차이가) 있고 그분들이 대비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특히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려다보니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 시기에 쫓겨 확정할 수만은 없었다"며 "정부로서 좀 더 지켜보고 의견수렴을 거칠겠다"고 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체 발사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 대해선 "미국경제와 미국 경제의 격차라든가 미·중간 광산물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지 않나 싶다"면서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6년 9개월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수출이 굉장히 어렵다보니 전체적으로 주춤했지만 작년 동분기 대비로 본다면 크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3월 한달로 보면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월단위로 보면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것도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추경경정에 산안(추경)과 관련, 이날 중 국회를 재차 촉구하며 "당장 내일(9일)부터라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협조를 요청 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 외국인 관광객 1535만명, 1인 1342.4달러 쓰고갔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535만명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57.8%가 2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2018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1만6469명을 대상으로 국내 공항·항구에서 면접조사를 했다. 2회 이상 한국을 방문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방문객의 절반 이상(57.8%), 2017년보다 4.5%포인트 상승했다.

여가·위락·개별휴가(78.4%) 목적의 개별여행(79.9%) 형태로 한국을 많이 찾았다. 주요 방문 지역은 서울(79.4%), 경기(14.9%), 부산(14.7%), 강원(9.7%), 제주(8.5%) 순이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여파로 1분기에 높은 방

문률(15.5%)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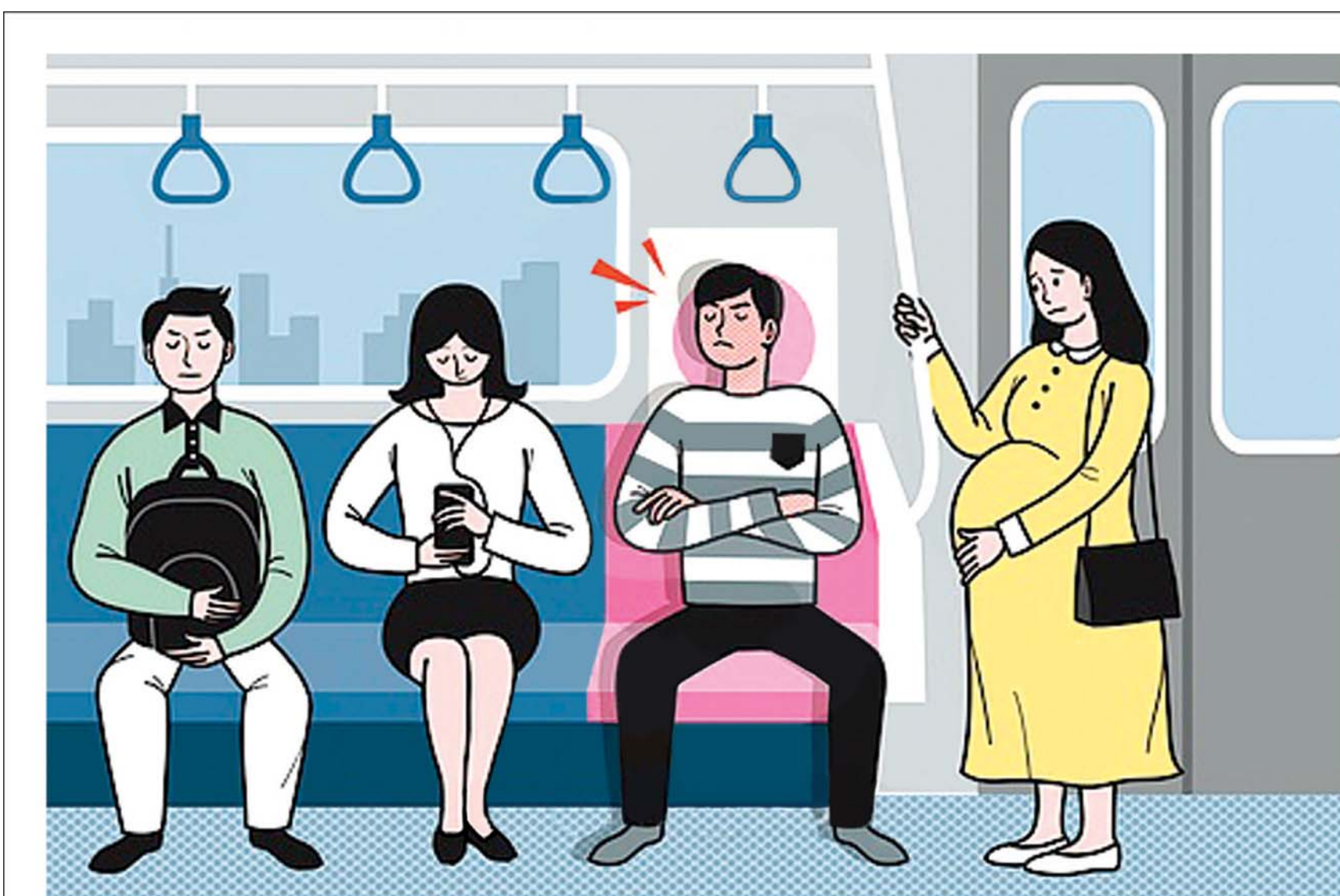
방한 기간 중 주요 활동은 '쇼핑'(92.5%)과 '식도락 관광'(71.3%)이 가장 많았다. 방한 외래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전년에 비해 139.2달러 감소한 1342.4달러로 집계됐다. 현금·수표 지출이 711.8달러(5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체크카드 596.8달러(44.5%), 스마트폰 33.8달

러(2.5%)가 뒤를 이었다.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3.1%로, 전년(94.8%)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인도(36.2%), 독일(39.5%), 싱가포르(46.4%), 말레이시아(47.6%) 등 비영어권·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문체부는 대중교통 외국어 노선도·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관광상품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